



어닝서프라이즈?... 국내외 곳곳에 암초 LG전자

삼성, 시장 전망치보다 10% 넘어 LG전자, 전분기보다 19.7% 성장

메모리반도체시장 침체 여전
수장 경영공백, H수출규제
무역전쟁 등 글로벌 난제 산적
미래먹거리·인재 육성도 제동

삼성전자와LG전자가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어렵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7조7000억원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7조5700억원) 보다는 56.18%나 줄어든 숫자지만, 전분기 (6조6000억원)보다는 16.67%나 뛰어 올랐다. 7조원 초반대로 쏠렸던 시장 예상도 10% 가량 넘어섰다.

LG전자도 7일 잠정 실적을 공지하며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했음을 알렸다. 영업이익이 7811억원으로 전년 (7488억원)보다 4.3%, 전분기(6523억원)보다는 19.7%나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양사실적비결을 휴대폰 사업 호조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에 이어 갤럭시 노트10과 보급형 신제품 점유율을 확대하는데 성공했고, LG전자도 V50으로 오랜만에 시장



LG전자 올레드 TV 생산 라인. 대부분 기계가 스스로 해낸다.

/LG전자

에 존재감을 부각했다. 아이폰 신형 판매 증가에 따른 계열사 실적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화웨이 파동과 함께, 5G 상용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가트너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도 2020년 2.9% 가량 성장할 전망이어서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시장 주도력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정작 시장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다. 삼성전자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반도체 부문은 여전히 저조한 성적인데다, 회복될 기미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3분기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3조원대 초반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3조6500억원)와

비교하면 5분의 1토막이 났다. 전분기 (4조1500억원)보다도 20% 이상 줄어 들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이 치명적이었다. 메모리칩가격은 삼성전자가 D램 판매가격이 전분기보다 10% 후반대 더 떨어졌다고 봤다. 출하량이 20% 후반

대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익은 더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D램 가격 하락세는 다시 시작됐다. 이날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 평균 가격은 3달러 수준이다. 최근 3달러 초반대에서 안정될 듯하다가 다시 떨어졌다.

서버용 CPU 시장이 AMD 신제품 인기와 인텔 공급난 해소 기대가 커진 데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등이 생산량을 줄이는 등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했음에도 가격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불안한 글로벌 정세도 문제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IT 분야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분위기다. 인텔이 차세대 메모리인 유펜테인을 앞세워 중국 IT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파운드리 업체도 삼성전자보다는 대만 TSMC에 수주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전자는 경영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사업지원TF의 주요 임원들이 잇따라 수사로 발이 묶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달 말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사내 이사 재선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비상사태에서도 삼성전자가 실적을 반등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부회장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으로 퀀텀닷올레드와 시스템반도체 투자 등 미래먹거리 육성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G전자에는 주력 제품인 올레드 TV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숙제다. 예상보다 판매량을 크게 늘리지 못한 데다, QLED TV와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조기 기능 논란에 따른 판매 감소 역시 LG전자 앞에 드리운 안개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5G에 희비 갈린 이통3사 ARPU가 실적 '구원투수'

(1인당 영업이익)

SKT만 선방, KT·LGU+ 감소 전망
5G 마케팅·투자 등 비용 급증 기인
ARPU 본격 반영... 실적 개선 기대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와 마케팅비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인당 영업이익(ARPU) 증가 영향이 점차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4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2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196억원, 1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25.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영업이익 하락은 5G 네트워크 투자로 인한 비용 급증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비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에는 LG V50 S 씽큐 출시에 맞춰 공시지원금 상향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5G 점유율은 SK텔레콤 43.8%, KT 31%, LG유플러스 25.2%를 기록하고 있다. 신규 단말 출시 상황에 따라 5G 점유율은 큰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마케팅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T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합산 마케팅비는 1조929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시장 조사 등의 영향으로 4·4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마케팅 경쟁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SK텔레콤은 5G 가입자가 확대되고 ADT캡스와 11번가 등 자회사의 실적 개선이 예상돼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3·4분기 매출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가입자의 고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5G 가입자는 SK텔레콤은 122만명, KT는 86만명, LG유플러스는 70만명이다.

그간 이동통신 3사의 ARPU는 선택 약정할인제도 도입 등 요금 할인 효과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 5G 요금제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보다 2만~3만원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가 늘어난 3·4분기부터 ARPU 성장세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네트워크 투자와 가입자유치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가 당분간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다만, 5G 가입자가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면 고가의 ARPU가 반영돼 점차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i@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

임시정부 100년!
백만송이 함평 국화와 함께

10.18.금 ~ 11.3.일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 함평군 주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국화동호회